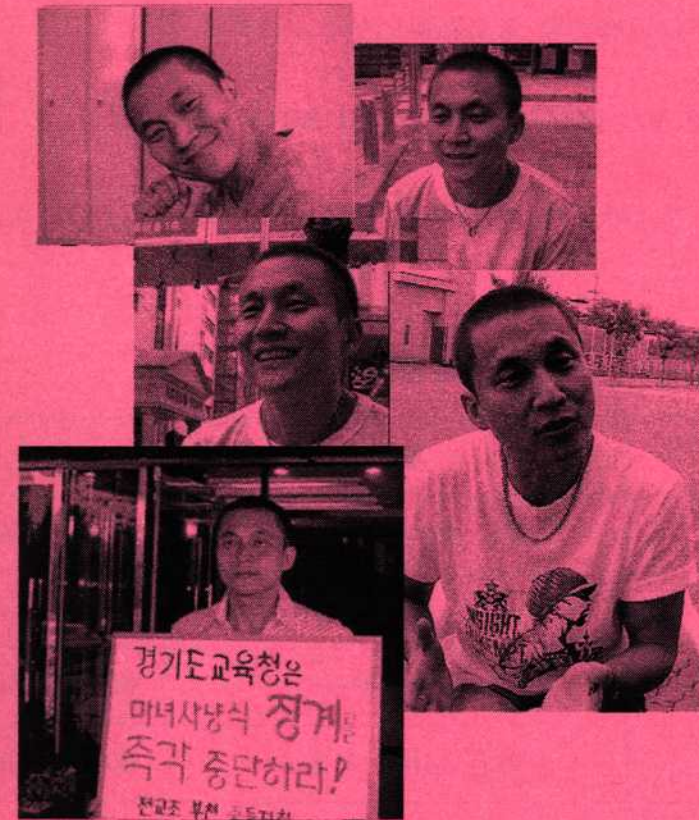


선의 외침 첫 번째 강연회

국기경례거부교사 이용석 선생님 강연회

내가 국기 경례를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교실의 다양성...



일시 : 2006년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6층 612호

주관 : 국기경례거부교사 부당징계반대모임 '선의 외침'

차례

다시 한번 배움을 생각한다 2

저도 안 합니다 4

나 역시 반국가적인 수업을 한 것인가 6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상' 대체 뭐니까? 9

악의 가득찬 <조선> 왜곡보도 비판한다 11

나는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가 16

몽둥이를 놓자 폭력이 보였다 18

일정표

시간	일정	비고
14:00 - 14:10	착석 및 참석자 소개	
14:10 - 14:30	선의 외침 소개 및 일정 설명	
14:30 - 15:00	다큐멘터리 감상	
15:00 - 16:00	이용석 선생님 강연	
16:00 - 16:15	휴식	
16:15 - 17:15	질의응답 및 토론	
17:15 - 17:30	정리 및 폐회 뒷풀이 장소 이동	

선의 외침 주소 : <http://club.cyworld.com/tokrad>

온라인 서명 운동 주소 찾기 : 미디어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네티즌 청원(agora.media.daum.net/petition)

→청원검색 : 이용석

다시 한 번 배움을 생각한다.

부천 상동고등학교 교사
고 은 주

2006년 12월...

어느새 내가 교단에 선지 12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근무해왔던 학교에서 관리자들 보기엔 매사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소위 '찍힌 교사'였던 내게 그 12년은 늘 순탄치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작년과 올해는 '대체 어느 학교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 소리 나도록 놀랍고 새로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오죽하면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글로 쓴다면 그 글의 장르는 판타지 소설일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을까.

하지만 지난 11월 27일 인터넷 한겨레를 통해 안산의 ○중학교 신현국 선생님 기사를 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우리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여겼던 내 생각이 한참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감히 교사가) 국기부정, 애국가 부정이라는 말로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 두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서 우리사회와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학교와 학부모의 문제제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이어지는 징계...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개인의 양심과 그에 따른 선택마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야만적 전체주의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말도 안되는 비방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직 성인이 아닌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접하는 이야기를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어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준다.

결국 이런 조건들 속에서 두 교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부모를 움직이게 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하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런 동료 교사에게 동조한 "미운털 박힌" 교사를 각자의 학교에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수업을 하다보면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에도 벅차고 수능에 대비해서 문제풀기까지 하다보면 정규교과수업에 보충수업까지도 시간은 늘 부족하다.

그런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며 열심히 수업을 해왔다고 만족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나를 비롯한 대개의 일반적인 교사들의 모습이다.

우리 현실과 관련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제시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볼 시간을 주고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경험들이 소중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도 나도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수업 안에서 그런 실천을 해나갈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진 채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만을 근근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교사들 스스로는 잘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이런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보다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던 이용석 선생님이 그로 인해 "3개월 징적"이란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사인 내가, 혹은 나의 행동이 학부모나 사회로부터 이해받고 신망받기보다는 오해받고 불신의 대상이 되기 십상인 요즘과 같은 교육현실 속에서 용석샘에게 일어난 일들은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옆에서 겪은 내가 안타까워하고 상심해하는 것과는 달리 용석샘 본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과 실천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었다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소화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잃은 것만 있는게 아니다.

용석샘도, 나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 일을 겪은 모든 사람들도 각자 다른 것들을 느꼈겠지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기에 그 과정에서 무엇이든 배우고 또 성장했으리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저도 안 합니다

밀양 밀성고등학교 교사
이 계 삼

이용석 선생님께

지난 8월4일 보충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에 가 있던 중에 쉬는 시간마다 <연합뉴스> 사이트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기에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어느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마침내 뉴스가 떴더군요. “국기경례 거부 교사 정적 3개월 중징계…” 혹시 과면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했던 터라 약간 안도가 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노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당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배제야말로 편향 교육

선생님, 실은 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교직에 들어선 이후 한 번도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 제게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 자체가 사무치게 싫습니다.

1년에 몇 번 전체 모임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맹세의 주문 속에 고요히 가라앉은 아이들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 대열 맨 뒤쪽으로 빠집니다. 얼마 전까지는 김선일, 전용철, 홍덕표씨가 생각났고, 이제는 마흔살 나이에 장가도 못 가보고 경찰 방패에 머리가 갇히어져 한 많은 ‘노가다’의 삶을 마감한 하중근씨가 떠올라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알량한 게 양심입니다. 제가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사립 학교 공채에 합격해서 발령 통지를 받고 학교에 들렀을 때 교감 선생님이 대뜸 제게 “전교조에 들 거야, 안 들 거야?” 하며 재우쳐 묻더군요. 공교육과 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반 아이들을 불러서 제 수업 내용을 물어보는 일도 심심찮게 겪었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끝끝내 지키고 싶었고, 국기 경례를 하지 않는 것도 그 일부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국기 경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의아해합니다만, 선생님처럼 저도 그런 아이들에게 저처럼 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란 얼마나 복잡한 여정입니까. 그 술한 계기 속에서 걸어올린 제 세계관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직선으로 뒤쫓아오게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도둑질을 가르치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사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거짓 없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단에 로봇을 세우지 않고 사람을 세운 이유입니다.

<조선일보>가 편향적 교육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지만 12년의 학교 교육이야말로 곧 경쟁과 배제, 침묵과 타율을 내면화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편향적 교육이 아닙니까. 아이들끼리 쓰는 말로 ‘니 코나 닥을’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온 국민을 상대로 해온 ‘극우 편향 세뇌 교육’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도 고발하라

선생님, 얼마나 비열하고도 무서운 일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언론이 일개 교교 교사 한 사람을 지면에서 못매를 때리고, 결국 징계로까지 몰아가는 이 형국은... 선생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일개 교사에 불과하지만 저도 선생님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조선일보>가 최장집 교수의 사상을 검증하겠다고 소동을 피울 당시의 홍세화 선생 흉내를 좀 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위에서 밝혔다고 나 또한 이용석 교사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나도 고발하라. 나 같은 교사가 제법 될 텐데, 다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것도 당신들 양심의 발로라면 할 말은 없는데, 당신 양심이 소중한 만큼 남의 양심도 소중하다는 것만은 좀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당신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하늘도 감복하고 있으니 이제는 좀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이 글은 2006년 8월 17일 제 623호 한겨레 21 기고문입니다)

나 역시 반국가적인 수업을 한 것인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폭력적이다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교사
서 부 원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유가 한 가지뿐인 점이 마뜩치 않았던지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의 공적을 폄훼하는 교육을 했다'는 것과, '생활 한복을 즐겨 입고 다녀 아이들에게 투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따위의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이유로 한 교사를 반국가적이고 비교육적인 인간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멀쩡하게 학교에 근무하는 저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나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 받는 것이 아닐까?"

대학 다닐 적부터 값이 싸다는 것과 품이 넓어 행동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생활 한복을 즐겨 입고 있고, 결혼한 뒤로는 의복 문화에 관심이 있는 (현재 중학교 가정과 교사인) 아내 역시 적극 추천(?)해서 양복보다도 훨씬 더 자주 입는 '생활 한복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초임 교사 시절에는 몇몇 '완고한' 어르신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적은 있지만, 지금은 학교 내 다른 선생님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 곧 양복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질 않습니다. 고정관념을 살짝 비켜서서 생각하면 어떤 옷을 즐겨 입느냐의 문제는 어떤 색깔과 스타일을 좋아하는가와 같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 한복을 입는다는 게 취향이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투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지금껏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유가 되었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국사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이순신 등과 같은 인물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게 됩니다. 물론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의 공적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적은 없지만, 역사는 학문 특성상 학자적 양심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도마에 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들테면 저는 임진왜란 단원을 수업하다 '승병들의 호국정신과 투쟁'을 문제 삼아 토론을 시켜보는데 성직자로서의 계율을 어긴 행위였다는 주장과 한 핏줄로서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보여준 위대한 모범이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교사로서 무능한 것인지, 비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참 토론이 뜨거워질 때쯤이면 집에 가서 부모님과도 한 번 얘기 나눠보라며 두루뭉수리 덮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국사 과목이 전국에 하나뿐인 국정교과서를 써야 하는 탓에 국가와 민족을 '흠 잡는' 그 어떤 내용도 용납하질 못한다지만, 현재 적지 않은 교사들이 다양한 역사적 시각과 관점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의 서술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내용을 좀더 풍성하게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과정에서 '민족의 성웅 이순신'마저도 도마 위 생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는지요.

중국이 '동북공정'의 이름으로, 또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로 집적거린다고 해서,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역사 교육을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은 중국, 일본과 함께 춤추려는 '부화뇌동'식 접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따위의 정부의 단순함을 보완할 수 있으려면 교과서의 내용조차 의심하며 재구성해 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며, 곧 '이순신의 공적을 폄훼했다'는 것조차도 충분히 용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기억

한편, 저 역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할지언정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라는 '맹세'는 철이 든 이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30대 후반이 넘었다면 다들 고개를 끄덕일 테지만, 학창시절 국기에 대한 맹세는 물론, 애국가 -그것도 4절까지 모두-, 국민교육헌장을 죄다 외워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땐 수행평가라는 제도가 없어서인지(?)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듯하지만, 못 외웠다고 매 맞았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외우라고 시키는 선생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외워야 하느냐'고 물었다가 더 혼쭐난 기억은 차마 빨리 지우고 싶은 학창시절의 추억(?)입니다.

세월이 하수상해서인지 지금은 교과서 어디를 찾아봐도 국민교육헌장 전문은 없습니다. 그 흔한 태극기 사진도 잘 볼 수 없으며, 음악 교과서가 아니라면 애국가 4절까지 적어놓은 악보는 구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의 발전이라면 발전이겠습디만, 그렇다고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민족과 국가(國家),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래 봐야 불과(?) 120여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태극기를 우리 민족 '고유'의 문양이자 상징인양 여기고 그 앞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며 으박지르는 '애국조회'가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도 여전히 남아 있음이 그 뿌리 깊은 '의식'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 중 태극기의 유래에 대해 얘기 나누면서 가운데에 동그랗게 그려진 태극문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물었더니만, 한 아이의 답변이 인상적입니다...

"과란 부분은 우리나라이고, 위의 빨간 부분은 북한이에요."

"....."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상’, 도대체 뭘니까?

김화진 교육부교육감님께 보냅니다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교사
서 부 원

국기에 대한 ‘맹세’는 폭력적입니다. 그것도 민족에 대해, 국가에 대해, 나아가 그 상징인 국기에 대해 별 생각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일본이 도발한 ‘태평양 전쟁(이른바 대동아전쟁)’ 때 ‘가미카제(神風)’들이 자폭하면서 외쳤다는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제국 만세!’라는 절규와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뇌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한 교사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학교의 관리자들과 학부모들에 의해 고발되어 징계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획일적인 사고만을 강요하는지, 또 얼마나 성찰이 없는 천박한 곳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고발 사유만 놓고 보면 그 교사와 저는 ‘비슷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측과 학부모들에 의해 고발당해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반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과 공감하며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과 학교가 ‘좋은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선생님께 괜한 죄송스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선생님! 부디 강건하십시오.”

(이 글은 2006년 7월 16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게, 너무 앞서 가지도,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럭저럭 사회 분위기 맞춰가며 대충 살아가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친 상동고 이용석 교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끝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들게 된 생각입니다. 더구나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화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 제시한 징계 사유를 접하노라니 아쉬움을 넘어 현직 교사로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까? 입만 열면 '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라 외쳐대면서도 정작 보편적인 것만, 다수(?)가 인정하는 것만 가르쳐야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부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보편적 가치와 사회적 통념'이란 것은 과연 언제, 또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이신 말씀처럼 '전국 40만 명의 교사에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용석 교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어쩌면 이용석 교사보다도 더 '위험한' 교사일지도 모릅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겁도 없이(?) 말입니다.

"교과서를 성서의 말씀처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실만을 열거한 무미건조한 서술이라면 거기에 스스로 가치 판단이라는 살을 붙여 보고, 전쟁과 관련된 역사를 읽을 때도 우리나라의 관점이 아닌 '적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해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파계승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눈이 필요하다. 그게 역사 공부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물론, 체육대회, 축제 같은 행사 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민의례가 과연 각 행사마다의 성격에 어울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어렸을 적 국기가 낡아 헤지면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태워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유치한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보편적이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별다른 태클(?) 없이 교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 관내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개인의 양심은 존중하지만, 학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안 된다."

곧, 개인의 양심은 갖고 있되 (학교에 누가 된다면) 소신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만, 교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교육의 내용이든 형식이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기계로 남아야 한다면 그 행위를 어찌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선부른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묵묵히 살아가는 40만 명의 교사들 중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 당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지금껏(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 넘도록 별 생각 없이 따라 하다 보니 몸에 밴 관행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해 온 것이라고 보면 그 많은 애국적(?) 교사들을 욕보이는 망언일까요.

저 역시 이용석 교사처럼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입바른(?) 맹세는 해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맹세의 구절 하나하나를 되뇌다 보면 섬뜩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선가 맹세의 구절을 듣게 되면 이런 단어들 스치듯 떠오릅니다.

폭력, 국가, 강제, 규율, 질서, 집단, 전쟁...

부교육감님의 말씀대로 이용석 교사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에 반감을 갖도록(백번 양보해서) 강제'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것을 '부당하게' 받아들였다면, 서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교사와 학생 간에 '계급장 떼고' 토론 한번 걸판지게 벌여보게 했더라면 얼마나 귀중하고 알찬 수업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토론의 도마 위에 국가든, 국기든, 그 무엇이든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조차도 정계 대상입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대 바람직한 교사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40만명의 교사들에게 교육행정의 전문가이자 교육계의 선배로서 귀중한 말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2006년 8월 22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공개 편지입니다)

악의 가득찬 <조선> 왜곡보도 비판한다

"사설모의고사 반대교사 축출음모"

前 부천 상동고등학교 교사
現 시흥 정왕중학교 교사
이 용 석

부천 S고는 지난 해 네이스 입력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담임권을 강제박탈해 갈등을 유발했다. 또 전교조 교사가 불법 사설모의고사를 거부하자 사설모의고사를 원하는 학부모를 이용해 학부모와 전교조 교사 사이의 갈등으로 조장했다. 학교당국은 이 일을 계기로 나를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9일 조선일보가 "전교조 교사 편향교육에 학부모 화났다"는 비열하고 악의에 찬 기사를 써서 한 전교조 교사를 부당하게 비난함으로써 전체 전교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 모두 왜곡 아니면 과장

조선일보의 기사는 모두 사실 왜곡이거나 과장이다. 진정서의 내용에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 부분'과 '군대 가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이라는 부분만을 왜곡·확대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말도 "학생들이 ~라고 했다더라"는 등 부정확한 내용들뿐이다. 나를 이용해 전교조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너무나 가증스럽다.

올 해 초 본교에서는 3학년 불법사설모의고사를 보려고 했었다. 내가 불법모의고사에 반대하자 이 과정에서 3학년 학부모 10여명이 교장실로 찾아와 나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다. 학교장은 학부모들과 내가 만나자마자 자리를 떠났고, 학부모들은 불법사설모의고사를 반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내가 입고다니는 개량 한복까지 문제 삼았다.

학교장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학부모들은 나에게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사를 본교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사설모의고사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책임지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장은 슬쩍 빠져나가고 학부모들이 개인교사와 싸우도록 조장했다.

개량한복은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기는 의상이다?

그 후, 1차 학부모 민원이 도교육청에 접수됐다. 민원내용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군대가지 말아야 한다는 등 편향된 가치관 교육,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기는 의상(개량한복류), 정문 앞 피켓시위 등 4가지였다.

1차 학부모 민원이 도교육청에 의해 처리되었으나,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 대표

가 2차 학부모 민원을 준비했다. 그러나 5월 29일 2차 학부모 민원은 학부모가 아닌 본교 한 부장교사가 대신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6월 16일 본교 전교조 분회장이 학부모 대표에게 확인전화를 걸자 학부모 대표는 "내가 부탁해 학교장이 한 부장 교사에게 지시해서 2차 학부모 민원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6월 19일 조선일보가 취재하러 학교를 방문했다. 조선일보 기자는 학교장실에서 취재를 진행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취제도 교장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 취재 사실에 대해 학교장은 해당 교사인 나에게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취재과정에서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당사자 동의 없이 취재자에게 제공해 학생들이 기자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이는 학교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한 전교조 교사를 죽이기 위해 아이들의 정보까지 이용한 것이다.

학부모 민원 부장교사가 대신 작성해줘

학교당국이 한 전교조 교사를 내쫓기 위해 학부모를 내세우고, 이에 입맛이 당긴 조선일보가 사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아래는 6월 19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다.

전교조 교사 편향교육에 학부모 화났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민족에 충성을 강요 난 경례 않는다"
"군대서 살인기술 복종문화만 배워 軍 안가는게 좋아"

이들은 또 "(일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조회 때 국민의례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몇몇 교사의 이런 행위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바람직한 학습권이 심히 우려되는 바 신속히 조치하여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신학기 첫 시간에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제 이야기를 했다. 그 주제는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였다. 나는 "차별은 그 자체가 폭력이며, 그러한 폭력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노약자, 빈민층 등 사회의 약자들은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으니, 좀 더 관심을 갖자"고 얘기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군대 이야기는 이 때 거론된 여러 가지 사례들 중 하나였다. 이후에는 이야기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늘 언론과 방송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은

학생 개개인의 몫"이라고 이야기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전체주의적 성격 우려했을 뿐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 것을 교육한 적이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서 '조국과 민족'이라는 표현만 있고 개인과 사회적 약자를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해 '국기에 대한 맹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다. 그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 뿐이다.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는 것도 이렇다. 1학기 시작 첫 시간에 학생들과의 대화 중,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무의식적 차별(성별에 따른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무의식적 인권침해 등 차이에 따른 차별)과 그 차별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군대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 성질(복종의 내면화)에 대해 언급하게 됐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본질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제로 한 폭력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폭력적 군대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군대를 가더라도 그러한 폭력적 성질이 내면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학부모 오모씨는 "이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국기(國旗)와 국가(國家)를 부정하는 세뇌교육을 하고 있다"며 "이씨는 또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위인(偉人)인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등 우리의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기와 국가를 부정하는 세뇌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위인인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경우는 이렇다. 드라마 이순신이 인기를 끄는 것과 관련하여, "이순신 장군은 무장(武將)이다. 힘(武)은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다. 문(文)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른 역사적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른 해석 있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우리의 역사를 부정한다고 할 때, "우리의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과거의 우리의 역사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앞에서 "힘"과 "폭력"이 숭앙되는 문화에 대해 반성하고 가야할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 부정하거나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재해석을 내린 적도 없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내면화된 문화 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폭력의 경향성들을 끊임없이 확

인하고 의심해보자는 것이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매우 다르다.

학부모 김모씨는 "이씨가 수업 시간에 '과업 중인 부친 세종병원 밤샘 농성에 동참하고 왔더니 힘들다, 비몽사몽으로 졸리다'고 하는 등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우리 아이는 공부하고 싶은데 50분 수업 중에 15~20분은 수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한다. 고3 아이의 학습권을 지켜줘야 할 교사가 교육은 제대로 않고 사상교육에만 몰두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잠을 자기에 "너희들이 자니 나도 졸리다"라고 이야기하며 방송에 보도된 세종병원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학생들이 졸려할 때 지역의 큰 사안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상교육이고 수업을 등한시 하는 것인가?

국어 수행평가라면 낙제점 받았을 조선일보 기사

한 번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그 퍼즐 속에서 사라지듯이, 이제는 모든 것을 그저 나쁜 교사로서의 본인에 대한 의심으로 가져가며, 기사 역시 그런 퍼즐맞추기의 하나로서 작성된 것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조차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

수업을 등한시한다는 주장이 액면 그대로 기사로 실린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신학기 초 1주일 정도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에는 수업 시작 때 서로 인사를 하고 시사적 이슈나 수업 집중을 위해 재미 있는 이야기 등에 대해 잠깐 언급할 뿐이다. 그마저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본교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6월 19일 새벽 4시에 있었던 한국과 프랑스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학생들이 관람토록 하기 위하여 월요일 오전 수업을 변경해서 주중 오후 수업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다.

"수업을 등한시하고 사상교육에만 몰두한다"라는 말은 악의적 비방이다. 어떤 학생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일반화시키고 사실인 양 포장한 이러한 기사는 만약 국어수업 시간이라면 근거가 부족한 글로써 수행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글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사실왜곡과 편파과장보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이 교사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갈린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했다.

전교조가 위기인가 조선일보가 위기인가

조선일보의 전교조 죽이기는 29일에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귀막은 전교조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장면1에 우리학교 얘기를, ##장면2에 전교조 농성장 얘기를, 그리

고 ##장면3에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연결해 실었다.

한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당국과 일부 학부모, 전교조 교사 사이의 갈등을 악용해 전교조 전체를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회부 데스크에서 바라본 전교조는 지금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최악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으나 그들만 이 같은 현실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고 썼다.

나는 거꾸로 조선일보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을 죽이지 않고서는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악의에 찬 기사를 써대고 있다는 생각이다.

조선일보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 전교조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입증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 조선일보 기사의 사실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해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글은 2006년 6월 22일 레디앙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나는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가

前 부천 상동고등학교 교사
現 시흥 정왕중학교 교사
이 용 석

이 문제의 시작은 학내 갈등이었어요. 교장이 올해 3월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보겠다고 해서 [나는] 반대했고, 교장이 자신과 일부 친한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제게 항의 방문을 보냈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학부모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는 빠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다, 폭력적인 군대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 개량한복을 입고, 반지, 목걸이를 한 것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죠.

교육청에서 1차 조사가 내려왔고 문제를 삼을 수 없어서 마무리됐죠. 결국 학부모들이 <조선일보>에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바로 2차 조사가 내려왔는데, 결국 8월 9일자로 정직 3개월 상태입니다.

저는 해마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첫번째 시간은 학생들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얘기했죠.

그 때 나온 얘기가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안 한다. 왜냐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라는 허상의 구호 속에서 국가주의를 내면화시킨다", "우리가 군대를 당연시하게 되면, 그리고 군대에서 2~3년 지내고 나면 폭력이 내면화된단다. 그런 군대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나는 교사이고 여러분은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권위주의적 관계를 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평소 수업 때도 이라크 파병, 세종병원 문제, 성적 소수자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편향된 가치관 교육이라며 민원이 들어간 것이죠.

저는 7년차 교사입니다. 교사 1, 2년차를 거치면서 기존에 제가 싫어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맞으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교사 생활을 하는 제가 학생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를 지나고 나서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라구요. 학교 현장에 스며들어 있는 남녀차별, 나이주의, 장애

인 차별 등이 보이면서 고민이 됐죠.

그렇다면 내 일상에 뿌리 깊게 배어 있는 차별과 폭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 귀에 탁 들어왔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 도대체 조국과 민족은 무엇이며 왜 민중과 나의 삶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맹세는 전체주의를 보여 준 것이고 이것은 자본주의를 유지, 확대,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국가주의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내면화시킨 모든 이데올로기, 차별에 따른 폭력 등을 거부하는 일상의 실천을 자신부터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문제의 중심이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데 제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글은 2006년 8월 26일 맞불에 실린 인터뷰 내용입니다)

몽둥이를 놓자 폭력이 보였다

前 부천 상동고등학교 교사
現 시흥 정왕중학교 교사
이 용 석

아침이다. 교문지도를 해야 하니까 서둘러야겠다. 아 참! 오늘은 학교 전체 운동장 조회가 있는 날이잖아.

아침 7시에 학교에 도착했다. 오늘의 수업 자료가 들어 있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교문으로 나간다. 난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사이다. 내 손에는 이미 나에게 잘 길들여진 단단한 몽둥이가 들려져 있다. 교문에서 학교 건물로 이어지는 진입로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제대로 봐야 한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 모양, 교복 상태, 운동화 종류, 왼쪽 가슴에 부착돼 있어야 하는 이름표, 남학생의 넥타이와 여학생의 리본 착용 여부 등 이 모든 걸 한눈에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 개개인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왼쪽으로 일렬을 지으며 들어온다. “너, 머리!” “너, 운동화!” “너, 야! 너 말이야! 왜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 영?” 색출된 아이들은 진입로 오른쪽에 손 들고 서 있게 한다.

가장 싫어하는 인간과 닮아버린...

아침 7시50분. 등교 시간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모두 지각생이다. 지각생들은 진입로 오른쪽에 일렬로 ‘엎드려뺨쳐’를 시킨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제정신이나?” “넌 또 지각이야?” 지각생들은 엉덩이를 맞는다. 잘 부러지지 않게 다듬어놓은 몽둥이로 초범과 재범 등을 가려내어 엉덩이를 때린다. 어쩔 수 없다. 이걸 벌이니까. 지각했으니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바로잡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아직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이걸 교사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아침 9시. 학교 전체 운동장 조회가 시작된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저 뒤에서 시시덕거리 는 아이들이 눈에 보인다. 아이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서 정강이를 냅다 걷어찬다.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거 몰라?”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중이다. 아이들의 줄이 흐트러지고 여기저기서 잡담이다. 아이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정강이 차기, 뒤통수 치기, 꿀밤 주기 등 온갖 잡기를 동원해서 ‘질서’를 잡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반장, 시작하자”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교사 1년차 때 나의 모습이다. 덕분에 나는 1년 내내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울 수밖에 없었다.

군대 시절에 많이 맞았다. 군기를 잡기 위해, 부대가 원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 상명하복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많이 맞았다. 그때 난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느꼈다. 인간으로서 존중이 아니라 오로지 계급에 의해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을 보고 치를 떨었다. 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미 나에게서 그 폭력이 내면화돼 있었다. 당연히, 혹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각인시키면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폭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가 된 뒤 1년을 보내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내가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내 손에서 몽둥이를 놓은 것은 그로부터 1년 뒤, 상당한 시간이 더 흐른 뒤였다. 손에서 몽둥이를 놓은 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단지 ‘내’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손에서 몽둥이를 놓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게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몽둥이를 들지 않은 손과 입과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 말이다.

‘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다

여학생들에게 여자다움을, 남학생들에게 남자다움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남녀의 성역할을 고정시킴으로써 성적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꾸중을 듣고 있는 아이의 자존심이 무너져내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잘못을 해서 교무실에 불려와 교사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프다는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돌아가는 모습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똑같은 머리 모양과 똑같은 복장에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라고 힘있게 말하는 마이크 소리에서 군대식 복종 문화가 자리잡은 학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학생 두발 규정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아이들의 인권이 무너져내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구호에 모두가 국기만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무조건적 충성을 요구하는 국가주의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한 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학교는 ‘이 사회’를 ‘그대로’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 남성, 성인, 이성애자, 비장애인 중심의 획일화된 가치관과 그것이 반영된 제도가 ‘상식이고 정상’이라고 말하는, 단지 차이일 뿐인 것을 차별하는 이 사회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소외된 약자(없는 자, 여성, 청소년, 성적 소수자, 장애인)의 권리는 사회 전체를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미덕’이고 ‘우선’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에 말로는 다양성을 말하지만 사실은 ‘획일화된 상식’이 교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몽둥이만 들지 않았을 뿐, 획일화된 상식의 폭력이 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던가. 아마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장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금의 학교 구조 속에서 일

개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몇 명의 학생이 남았는지가 교사의 학생지도 능력으로 이해되는 입시지옥 학교 현실에서 일개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에게 인권은 사치가 되어버린 학교의 몰인권적 문화 속에서 일개 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에 대한 좌절과 무기력함이 부끄러운 시간들이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것인가?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주입시키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나는 삶으로 아이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의 삶에서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나의 삶이 획일적 상식이 아니라 다양성 그 자체를 인정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대상에게도 폭력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말이다.

획일화된 상식을 거부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만을 강요하는 모든 경향성을 반대한다. 그 경향성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전체주의는 결국 모두에게 개인의 삶을 부정하는 억압과 폭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경향성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획일화된 문화와 규범에 반대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개인과 존재의 다양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학교 구조에 반대한다. 그것은 일방적 복종만을 통해 이 사회를 그대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힘들 것 없는 동작과 몇 마디밖에 안 되는 문장이 무조건적 충성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와 정당성은 과연 누구에게서 부여받은 것인가? 지금 이 획일화된 사회에서 내가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나는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획일화된 상식'을 거부하고 싶다. 국기 경례(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은 나에게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시켰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나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나를 '편향된 가치관 교육'의 문제 교사로 낙인찍었다. 그리하여 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예정을 통보받았다. '획일화된 상식'의 벽이 아직 매우 높다는 것에 마음이 우울하다.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나 자신에 대한 시험장이 될 것 같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글은 2006년 8월 9일 제 622호 한겨레 21에 실린 기사입니다)